

오래되니 새롭군요 ... 한국 노장들에 쏠린 눈

트렌드 &
50년대부터 전위 자처한 이승택
런던 한복판서 설치작 '삐라' 전시
파리 페로탱에서는 박서보 회고전
하종현·윤명로 등 세계시장 재평가

#1. 6일(현지시간) 파리의 갤러리 페로탱에서는 박서보(83)의 회고전이 시작됐다. 페로탱은 영국의 데이미언 허스트,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를 일찍부터 소개해 온 굴지의 화랑이다. 7일 뉴욕 블럼앤포 갤러리에서는 하종현(79) 회고전이 열린다. 단색화의 대표 작가인 두 사람은 올 들어 세계 곳곳의 전시와 아트페어 참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 지난달 15일 런던 리젠트 파크엔 '핵 무기를 폐기하라' 'NO WAR'라고 적은 대북 전단 풍선들이 설치됐다. 원로 전위예술가 이승택(82)의 작품 '삐라(Ppira)'다. 세계적 아트페어인 '프리즈(Frieze)'의 야외 조각 프로젝트 출품작이다. 함경남도 고원 출신의 실향민인 작가가 70년대부터 선보인 작품을 재현했다.

최근 우리 가요계가 90년대를 돌아보고 있다면, 미술계의 시간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70년대에 활약한 이들, 이제는 노장이 된 예술가들 재조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다. 미디어아트와 설치 등 미술 매체의 확장이 일었고, 극사실주의와 팝아트가 시장의 각광을 받았던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70~80대 노장의 귀환은 이채롭다. 이들이

해외 미술계에서 '참신한 예술'로 새삼 주목 받으며, 정체에 빠진 국내 미술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9월 로스앤젤레스 본점에서 한국 단색화 대표작가 6인의 회고전을 연 데 이어 뉴욕서 하종현 회고전을 마련한 블럼앤포 갤러리의 티모시 블럼(50) 공동대표는 "미술계에는 늘 새로움이 필요하다. 2년 전 70년대 일본 미술 운동인 모노하를 미국에 소개하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에 자신감을 갖고 박서보·하종현 화백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팔순 넘어 주목받는 재야 작가**=프리즈 아트페어의 공공미술전인 '프리즈 조각공원'과 원로 작가전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동시 초대된 이승택의 회고전은 서울 삼청로 갤러리현대에서 9일까지 이어진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시대 사조와 고정 관념에서 비껴난 작품을 내놓은 그의 미술 이력을 되돌아보는 전시다. "나는 세상을 거꾸로 보았다, 거꾸로 생각했다, 거꾸로 살았다"라던 작가는 한강변에 녹색 물감을 칠하거나, 전시장 흰 벽에 노끈을 열기설기 묶는 '드로잉'을 선보였고, 고인돌에 링거병을 달기도 했다. 58년 그가 농가의 고드렛돌(발이나 돛자리를 엮을 때 쓰인 돌)에서 착안해

노끈으로 돌을 주렁주렁 매단 설치는 현재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소장품 상설전에 나와 있다. '재야 작가'로 취급돼 온 그의 존재는 2009년 백남준아트센터가 제정한 국제예술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새로움을 선점하라**=지그마르 폴케, 수보드 굽타, 장환 등 동시대 미술의 첨단을 소개해 온 아라리오갤러리는 서울 삼청로 지점에서 23일까지 윤명로(78) 서울대 명예교수의 전시를 연다. 그는 1960년 '60년 미술가 협회'를 창립하며 덕수궁 담벼락 전시를 열어 국전의 권위에 맞섰었다. '자' '균열' '얼레짓' '겸재예찬' 등 연작을 발표하며 붓과 빗자루를 써서 기운생동하는 정신의 흔적을 담아낸 대형 회화를 내걸었다.

이처럼 원로들이 재부상한 이유는 뭘까.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외형만 그럴싸한 그림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용의 깊이를 중시하는 진중한 예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며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 규모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한국 미술 시장의 주요작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윤명로, 정신의 흔적 MXIV-310, 2014, 리넨에 아크릴, 182×227.5cm. [사진 아라리오갤러리]